



유동성이 끌어올린 ‘K-인베스트’... 규제 위험·한정된 소재 부담

올해 한국 기업과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다. 대기업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졌고, 글로벌 투자사는 한국에서의 성과에 고무됐다. 글로벌 사모펀드(PEF)들은 플랫폼 기업 경영권 인수에 수천억원을 들였고 소수지분 투자에도 조 단위 자금을 쏟아부었다. 부동산, 물류센터 등 실물 자산 투자가 많아졌고 한국 시장 접점을 늘리기 위해 수뇌부를 다시 꾸리는 기관도 있었다. K-컬처가 전 세계에서 각광 받듯 투자 시장에도 ‘K-인베스트(K-invest)’ 바람이 부는 모습이다.

소규모 기업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다. 이전까진 국내 소형 벤처캐피탈(VC)이나 PEF로부터 성장 자금을 받는 것이 지상과 제였지만, 이제는 글로벌 PEF에 손을 벌리는 사례가 늘었다. 대부분 해외 진출을 하겠다며 일반적으로 투자안내서를 보내는 식인데, 어쨌든 글로벌 PEF의 눈에 들면 기업 가치가 급증한다. 한 회계연도가 돌기도 전에 기업가치가 30% 이상 뛰기도 한다.

작년까지 적자이던 한 화장품 제조사는 베인캐피탈, 모건스탠리 PE 등 글로벌 PEF에만 투자 의사를 타진했으니 이제 막 성과가 본격화하는 시기다 보니 투자 유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다른 온라인 가구 업체도 해외 시장을 넓히겠다며 잠재 투자자들에 투자 의향을 물었는데, 소규모 투자가 어려운 글로벌 PEF들은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국계 투자사 관계자는 “작은 기업들은 일단 해외 시장 확대 명분으로 수백억원 규모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냐고 묻지만 규모가 너무 작으면 제안을 받기 어렵다”며 “회사 측에선 경영권을 가져가도 되니 투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역제안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한국이 부각되는 배경엔 남치는 유동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춤했으니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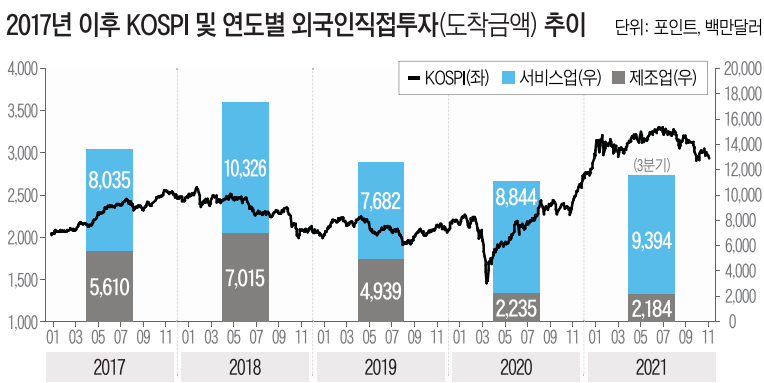
해는 자금을 적극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해외 금융정보사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글로벌 인수·합병(M&A) 규모는 약 4조3000억달러였다. 연말까지 기존 최고 기록(2015년 4조8000억달러)을 너끈히 넘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아시아에선 역동적이고 신산업이 속속 나타나는 한국이 주목받았다. 해외에 상장(IPO)한 쿠팡, 몇 개월 만에 수백%의 내부수익률(IRR)을 기록한 카카오뱅크 등 성과들이 쌓이니 해외 투자자들이 기회를 찾아 혈안이 됐다.

한국은 한때 글로벌 투자 시장의 변방으로 여겨졌지만, 몇 년 새 분위기가 달라졌다. 굵직한 위기를 거치며 전문 인력의 역량이 강화됐고 시장 규모도 커졌다. 팬데믹 초기 타격을 입은 주식 시장은 이후 호황을 구가하며 극적 반전에 성공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토종 IT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에 종속되지 않고 살아 남는 사례도 세계적으로 드물다.

주요 대기업들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췄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도 적극 대응한다. 해외에서 현대차와 SK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됐다. 합작법인(JV) 설립도 과거엔 우리 기업이 읍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아마존, 우버 등과도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한다. 기생충, 오징어게임 이후로는 ‘K-콘텐츠’ 관련 기업에 러브콜이 이어진다. 국내 PEF가 해외 대형 M&A에 나설 땐 투자은행(IB) 본사에서 핵심 출자자(LP)의 성과까지 끌어올 정도도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한국은 지정학적 반사 효과도 봤다. 일본은 아직도 연필로 투표할 만큼 문화가 보수적이다. PEF 시장도 독자적·폐쇄적이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았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예측불허 규제를 쏟아내며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중국에서 빠진 자금은 한국에 눈을 돌

주춤했던 글로벌 투자자 활동 두드러져
신사업에 적극, 역동적인 한국 시장 주목
일부 대기업·플랫폼에만 몰려 ‘제한적’
정치 논리·세계 표준과의 괴리 고질병



올해 주요 대기업 제휴 및 글로벌 PEF 한국 기업 투자 사례

시기	기업/투자사	내용
2월	칼라일그룹	카카오모빌리티 신주에 2200억원 투자
3월	어피네티에퀴파트너스	잡코리아 지분 100% 9000억원에 인수 계약
5월	앵커에퀴파트너스	카카오재팬 신주에 약 6000억원 투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II	아놀드 구주 및 신주에 약 2조원 투자
	소프트뱅크 비전펀드II	인공지능 교육업체 위이드 신주에 2000억원 투자
	SK이노베이션	미국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생산 JV 설립 MOU 체결
7월	LG전자	캐나다 마그나그룹과 설립한 JV 엘리마그나 이파워트레인 지분 49% 매각
8월	CBC 컨소시엄	베인캐피탈로부터 휴젤 경영권 지분 1조7239억원에 인수
10월	어피네티에퀴파트너스	GS리테일, 페미라 등과 함께 유기요 지분 100% 8000억원에 인수
	SK㈜	미국 모놀리스와 청록수소 관련 합작법인(JV) 설립 양해각서(MOU) 체결
	SK E&S	미국 플러그파워와 수소사업 관련 JV 설립 계약 체결
	LG에너지솔루션	미국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JV 설립 MOU 체결
11월	삼성SDI	미국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JV 설립 MOU 체결
	SKC	영국 넥시온에 재무적투자자와 함께 지분 투자 결정
	KKR	SK E&S 20억달러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 계약

출처: 한국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책, 글로벌 투자 표준과의 괴리 등은 한국의 고질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사고가 나면 뒤늦게 강력한 제재안을 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씨티은행 철수 문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뒷북 조치에 나섰다. 금융사에 대해 배당을 자제하라 압박하는 것은 해외 투자자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치솟는 금리를 옥죄만큼 영이 서는 것도 아니다. ‘먼지떨이식’ 금융사 감사를 줄인다고지만 금융사들은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반(反) 시장적 조치’란 평이 많았다.

한국거래소는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할 것으로 거론된다. 운용사 사이에선 대기업 오너와 차별화하며 볼멘 소리가 나온다. 교보생명, 남양유업 등 각종 투자에서 PEF가 곤경에 처한 것도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해외에선 투자에 배임·횡령 문제가 얽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다. 과세당국은 PEF의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지만 ‘출구 없는 땡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입법 기관은 표심에 휘둘린다. 택시 종사자 표를 얻으려 공유 차량 스타트업을 규제한다. 망신주기식 국정감사는 사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해외에서 주목하는 IT·플랫폼 기업들은 거대악으로 낙인 찍혔다. 주요 그룹들은 의사결정 체계를 손보려 하지만 아직 오너의 존재감이 크다. 정부나 국회, 수사기관이 때마다 오너를 흔들어대니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외국계 투자사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망해서 구글과 우버가 시장을 잠식하고 나면 나중에 구글 시장, 우버 시장을 국정감사에 부를 것이냐”며 “정치적 이유로 한국 IT 생태계를 악인화 하는 것이 건전한 방식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위상호·한지웅 인베스트조선 기자

‘리오프닝’에 대체투자 재개… 조직 ‘떼고 붙이고’

주요 연기금 해외 대체투자 확대
한투운용 ‘분사’, 신한운용 ‘합병’
대체투자 강화한 인사이동 단행
PE, 리오프닝 수혜주 전망 엇갈려

코로나로 멈춰섰던 투자업계의 대체투자자가 재개되는 모습이다. 전 세계적인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하늘길이 열리자 운용사들은 그동안 밀려있던 실사를 위한 출장을 다녀오는 경우가 늘기 시작했다.

위드 코로나에 따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수혜) 산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사모펀드(PE) 업계의 포트폴리오에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려는 PE도, 팔려는 PE도, 향후 경기 전망에 예민하게 촉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1월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투자업계에서는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 들어 성과가 좋지 않은 주식과 채권 같은 전통 자산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수요에 힘입어 대체투자 펀드 자금 유입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자가격리 면제 등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해외 기초자산 실사가 재개되면서 2020년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되었던 부동산, 특별자산 등 실물 대체투자펀드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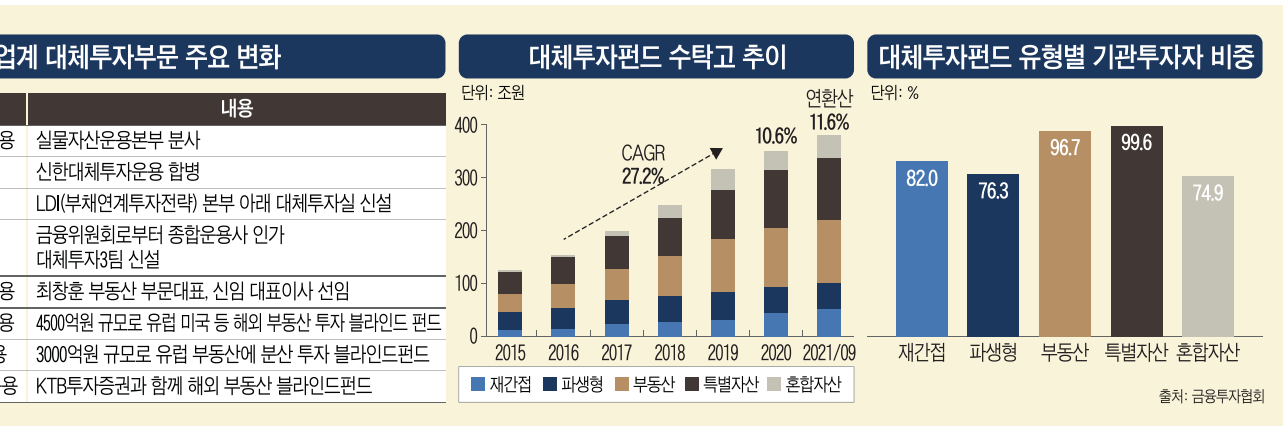
이에 대응하는 운용사들의 대체투자 부문 경영전략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실물자산운용본부 분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물자산운용본부는 국내의 부동산, 인프라, 원유 등에 대한 대체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한국투자증권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를 출시하는 등 그룹 내에서 대체투자 중요성이 커지면서 해외 대체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분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신한자산운용은 신한대체투자운용과 흡수합병을 선택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신한자산운용은 6조원에 달하는 대체투자 수탁고를 확보하며 업계 5위

지위를 공고히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 후 운용자산(AUM)은 5일 기준 79조4628억원으로 6위인 한국투자신탁운용(63조4346억원)을 크게 따돌린다.

시장에서는 신한자산운용의 합병 배경을 두고 중위권 운용사로 자리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이 나온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신한자산운용이 넘보고 있는 자리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나 한화자산운용 등 중위권 자리”라며 “대체투자 외에도 ETF나 퇴직연금 시장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며 운용사 간 치열한 순위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블랙록자산운용의 리테일사업부문을 인수하며 몸집을 키운 하이자산운용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공모펀드나 혼합·특별자산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종합운용사 인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대체투



자3팀을 신설하고 인력 충원에 나서며 대체투자 부문에 힘을 싣는 중이다.

최근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있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대체투자 부문을 강화했다는 시장의 평이 나왔다. 지난 3일 최창훈 부동산부문 대표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부동산 금융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대체투자 자산을 늘릴 것이라는 해석이다.

올해 초 취임한 KB자산운용 이현승 대표이사 사장은 대체투자에 정통한 인물이다. 2018년 대체투자부문 각자대표이사 사장에 오르며 해외부동산운용본부를 신설한 바있다. 취임과 동시에 LDI(부채연계투자전략본부) 아래 대체투자실을 신설하는 등 대체투자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해외 출장도 늘어나고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등 인센티브 이후 대체투자 인력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있다”며 “미국, 스위스 등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사를 가지 못했던 딜부터 챙겨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PE 업계에서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MBK파트너스는 온라인쇼핑 플랫폼 코리아센터와 다나와 인수전에 나

서며 빅데이터 이커머스 사업의 ‘볼트온 전략’(유사기업들과의 인수·합병)을 구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니스캐피탈 PE도 테라로사 투자에 이어 브루클린더 버거조인트, 효도치킨 등 F&B(식음료)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다.

리오프닝 산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PE마다 복잡한 섀베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업계 내에서도 코로나 특수를 보았던 골프시장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센트로이드PE, 스톤브릿지캐피탈 등 굵직한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 골프장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다. 골프 인구가 4000만명을 넘어서며 전성기라는 분석도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반짝 효과’라는 반박도 팽배하다.

한 PE업계 관계자는 “기존 골프인구인 5060에서 2030인 MZ세대까지 골프에 빠져들면서 골프산업의 저변이 크게 확대됐다”며 “오피스텔이나 호텔 같은 일반 부동산보다 유지비도 낮아 시장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PE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건설 중인 골프장이 20곳이 넘어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골프장 가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위축됐던 항공, 호텔 등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은 모양새다. 코로나 이전만큼 수요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PE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이 저가매수의 기회로 생각하고 관련 산업을 인수했으나 당분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된 후 확진자가 늘고 있어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F&B(식음료) 및 유통 산업 분야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식이 늘면서 F&B산업의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대세긴 하지만,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어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 만만치 않다. 위드코로나에 소비가 회복되며 리오프닝으로 기대되던 유통산업도 의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반면 화장품이나 백화점, 면세점 등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회복이 엇갈리고 있다.

한 PF업계 관계자는 “F&B산업은 투자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기업가치를 더 올릴 여력이 많다고 보진 않는다”며 “치킨이나 일부 커피브랜드 등 일부 F&B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미래 인베스트조선 기자

가족의 부담 덜어주는 All Care 간병보험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All Care 해주는
New 늘결에 종합간병보험으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All Care 해주는
한화생명 New 늘결에 종합간병보험(무)

상담문의 080.365.6363

한화생명 을 검색하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하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 특약 가입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1-02902호 (2021-07-27 ~ 2022-07-26)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1-10-107 제작부서: 브랜딩운영팀(2021.10)

한화생명

오피스는 북적, 골프장은 주춤… 전환점에 선 부동산

3분기 평균 오피스 공실률 낮아져
IT 기업·금융사 임차 수요 늘어나

국내 오피스 공실률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백신 효과와 맞물린 ‘위드 코로나’ 분위기와 함께 그동안 주춤했던 IT(전자통신) 및 기업 테스크포스(TF) 팀들이 속속 복귀하는 모양새다.

오피스 평당 매매가 역시 역대가를 기록했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면 코로나 효과로 몸값이 높아졌던 골프장 매물은 다소 인기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분기 국내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약 9.9%로 지난 분기보다 1.9%포인트 낮아졌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CBD(광화문·종로·중구 일대)는 1.1%포인트 하락한 11.2%, GBD(강남 일대)는 1.2%포인트 내린 8.0%, YBD(여의도 일대)는 11.9%로 무려 4.0%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줄어들었던 대기업 TF 및 콜센터 등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되살아난 덕분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리서치 회사 세빌스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CBD 와이즈타워에 신한은행 TF가 신규로 입주했고 메트로타워에서는 효성ITX 콜센터가 3400평 상당의 공간을 새로 쓰게 됐다.

그간 코로나 발발로 기업들은 잇따라 콜센터 및 해외 사업 TF 등을 해체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구로구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약 170명이 코로나에 걸리는 첫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다. 또한 해외 프로젝트 관련 건설업, 해외 지역 홍보 관광청, 외국계 소비재 회사 등 코로나로 직접적 타격을 받은 기업들 역시 임차 공간을 줄인 바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해당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여기에 코로나 시기에 급성장한 IT 및 플랫폼 기업들의 신규 임차 수요도 속속 채워지고 있다. GBD에서는 아마존 웹서비스(AWS), 카카오킨터테인먼트, 이커머스 플랫폼 소피코리아 등이 새로 입주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CBD에서도 SK터넷, 우티(티맵택시) 등 IT 관련 기업들이 임차 공간을 새로 채웠다.

이에 따라 서울 평균 오피스 가격 역시 역대급 기록을 새로 썼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3분기까지 누적 거래 금액은 11.1조원으로 역대 최대 거래 규모를 기록한 2020년(13.5조원)의 82% 수준이다.

2021년 전체 거래 규모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조앤홍 세빌스코리아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이번 분기 CBD의 캐시캐쉬어시티를 마지막으로 2022년까지 서울 주요 권역 프라임 오피스 신규 공급은 제한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공실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 시기 천정부지로 가격이 솟았던 골프장 매물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국내 골프장 수요가 치솟았지만 위드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탓이다.

특히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충족되면 국내 골프장 사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하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저가 회원권을 보유한 개인들 위주로 위드 코로나 국면에 맞춰 조금이라도 고점에 회원권을 넘기려는 수요가 생겨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국내 골프장 가격 역시 위드 코로나 분위기가 반영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충북 대종제 골프장 클럽디비오이 홀당 약 55억원에 인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한때 홀당 100억원을 육박했던 골프장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진 셈이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로 골프장 관련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며 “골프장 매물의 투자 매력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준영 인베스트조선 기자

4大 그룹 인사·조직 개편, 트렌드가 바뀐다

삼성, 컨트롤타워 다시 구축?
SK, 계열사 이사회가 인사권
LG, 구 회장 색깔 강화에 관심
현대차, 미래차에 맞게 조직 변화

앞으로 대기업들의 연말 대규모 인사는 점점 보기 어려워질 것 같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 ▲ESG 경영 필수 ▲포스트 코로나가 전제로 깔리면서 기업들은 상황 상황에 맞춰 예민하고 즉각적인 인사, 조직개편 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 실제로 국내 4대 그룹의 연말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오너 경영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경영 트렌드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보은 또는 인센티브 성격이 강했던 임원 인사는 사라지고 있다. 오너 경영인을 단순 보좌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 자체를 책임지고 맡길 수 있는 전문경영인 발굴 또는 확보가 중요해졌다.

올 한 해 삼성그룹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중동(靜中動)’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재 기간 그룹 전체가 사실상 울스톱이었던 때문에 이 부회장 출소 이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이 예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온다. 타깃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해체된 미래전략실을 대신한 전자, 금융, 중공업 3개 태스크포스(TF)다. 역할은 미미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삼성그룹이 다시 컨트롤타워를 만들지가 조미의 관심사다. SK그룹의 수펙스추구협의회처럼 그룹 내 조정기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문제로 흥역을 치른 바 있는 만큼 안팎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징	TF 대체할 새로운 컨트롤타워 불가피
과제	제2의 '미전실' 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장기적으로 전문경영인 육성 및 확보 필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사회 중심으로 가고 있는 ESG 경영 트렌드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사는 컨트롤타워의 방향성에 따라 맞춰질 공산이 크다. 장기적으로 보자면 삼성그룹의 최대 과제는 부문별 전문경영인 육성 또는 확보다. 이재용 부회장 스스로 4세 경영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만큼 ‘구인(求人)’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만큼 힘든 여정이 될 전망이다.

SK그룹은 컨트롤타워의 힘을 빼려는 모습이다. SK그룹은 최근 파이낸셜스토리 점검을 마치고, 조만간 계열사별 인사 범위를 정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2월 중 정기인사를 발표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그룹 내 조정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와 각 계열사 이사회가 협의해 CEO를 평가하고 성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계열사 이사회가 사실상 CEO 인사를 하는 첫해가 될 전망이다. 각 이사회에 권한이 한층 강화되면서 그룹 ‘컨트롤타워’의 역할론 조정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월부터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특징	정의선 회장 강력한 리더십 발휘를 위한 조직 개편 첫 외국인 부회장 등장 가능성 등 보수적 기조 탈피
과제	조직 개편 유연성 확보와 노조 관계 회복

한상의 회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의 개별 사업보다는 그룹 전체의 그림을 그리려는 모양새다. 최 회장은 최근 잇따른 해외 출장을 통해 글로벌 경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경제 외교관’의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돌며 2차전지, 소재,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탄소 감축 등 친환경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수펙스추구협의회가 이사회 중심 경영의 토대를 마련했지만 이젠 이사회에 실질적 권한을 넘기는 시점이 되면서 그 역할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다만 CEO 평가에서 사외이사들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수펙스의 내부 교통 정리 없는 상황에선 임원들의 경쟁 과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곳은 LG그룹이다. 내년이면 구광모 회장이 취임 5년 차를 맞게 된다. 그동안은 총수 교체 후 안정에 무게를 뒀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전면엔 나설 때가 됐다. 이번 ‘원포인트’ 인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광모 회장은 이달 초 ㈜LG 최고운



최태원 SK그룹 회장

특징	수펙스 영향력 줄이고 계열사 이사회 권한 강화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의 경제 외교
과제	계열사 CEO 및 후보 간 트랙레코드 과열 경쟁 해결

영책임자(COO)였던 권영수 부회장을 LG에너지솔루션 대표로 선임했다. 배터리 부문 리콜 사태, 이에 따른 모회사 LG화학의 대규모 총당금 축적, 기업공개(IPO)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권 부회장이 다시 CEO로 등판했다.

그룹 2인자 격인 권 부회장의 이동으로 빈자리를 누가 채울 지가 관심사인 건 맞다. 하지만 그보다 구광모 회장이 ‘혁신’을 언급하면서 그룹 전반에 긴장감이 커진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젠 그룹 2인자가 아닌, 구 회장의 색깔이 더 뚜렷해질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서포터(supporter) 역할에 그칠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LG그룹은 내년 사업



권영수 부회장의 LGES CEO 선임

특징	권영수 부회장의 LGES CEO 선임 5년차 맞는 구광모 회장 존재감 드러나기 시작
과제	부문별 적합한 CEO 선임과 임원 세대교체 필요

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글로벌 경쟁 사들처럼 공장 자동화가 진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단순 생산직 수의 극히 일부만 남기는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관(官)의 관여도 있어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도 어렵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연말 인사에서 부회장단 변화를 최소화하며 자신에게 리더십을 집중할 수 있는 현 체제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동시에 첫 외국인 부회장 등장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인사, 조직도 미래를 향해가고 있다. 그만큼 정 회장 입장에서선 유연한 조직 개편이 노조 문제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점은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골치 아픈 문제거리다.

이도현 인베스트조선 기자

이재용의 ‘뉴 삼성’, 人事 시계 빨라진다

이 부회장 본격 경영 행보에
대규모 M&A·채신 인사 전망
‘뉴 삼성’ 구현할 인사 발탁에 주목

대기업 전반에 걸친 정기 인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다. 다소 불안정한 사업에 대한 위기를 돌파하고, 대규모 M&A를 성사함과 동시에 그룹 지배구조의 안정화까지 꾀해야 하는 삼성그룹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룹의 창립 52주년을 맞아 ‘새로운 삼성을 만들자’고 강조했고 ‘뉴(NEW) 삼성’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이후 대외적인 첫 메시지가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경영 행보를 재개함과 동시에 범위를 확대한 대대적인 ‘인사’에 나설 것이란 평가의 배경이 됐다.

삼성그룹 정기인사는 통상적으로 11월 말~12월 초 등 연말에 이뤄졌으나 사실이 부회장이 육고를 치르는 동안에는 대규모 또는 파격적인 인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원 인사의 폭도 최소화했다.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도 2018년 현대의 사내이사진을 구축한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경영진의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그룹이 이사진의 역할론을 강조하며 이사회 주도의 자율경영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 같은 체제가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이 부회장의 부재(不在), 이에 따른 의사결정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이 부회장이 구속수감된 2017년 이후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는 멈췄고, 대신에 친(親) 주주 성향을 강조하는 대규모 환원책이 등장했다.

다행히 반도체 업황의 호황과 코로나 시대의 반대급부로 삼성전자는 사업적으



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이를 경영진의 치적으로 삼기엔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재계에서 삼성전자 최고경영진 일부는 교체설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으나 대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해 유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올해 연말 또는 조금 앞당겨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삼성그룹의 정기인사는 고(故) 이근희 회장의 작고 이후 두번째 인사로써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도 관심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이 전권을 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구조 및 사업구상을 구현한 인사들에 관심이 모인다.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고, 이와 동시에 대규모 M&A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멈춰있던 투자 시계에 대한 문책성 또는 채신 의지를 비치기 위한 인사가 발표를 연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풀어야 할 하나의 숙제이다. 계열사의 순환출자고리를 끊어내야 하는 문제는 해결했고, 여당에서 발의한 보합업법 개정안도 담보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의 현안이라기보단 다소 여유를 갖고 풀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이 부회장 스스로 4세 경영 승계를 포기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방안, 계열분리와 같은 전략도 배제할 순 없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권

고를 바탕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규제 이슈에서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그룹 금융계열사의 처리방안도 상황에 따라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 또는 사업적 구상을 구현할 확실한 최측근 인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삼성그룹의 특성상 일부 신사업 군을 제외하고는 외부 인사의 파격적인 기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내부 유력인사들 가운데서 하마평을 찾아보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선부른 인사 예측은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그룹이 과거 미래전략실을 대체하기 위해 삼성그룹 계열사 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황에서 사실상 컨트롤타워 조직인 각 TF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직개편과 인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더불어 새로운 전략적 투자 방안들이 속속 제시되면서 새로운 인사 발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시점”이라며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대한 문책성 인사도 예상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신사업과 대규모 투자, 향후 이 부회장의 경영을 보좌할 최측근 인사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시점”이라고 했다.

한지웅 인베스트조선 기자



원칙은 곧게
믿음은 곧게

금융이 지켜야 할 원칙
고객과 지켜야 할 약속
한국투자증권이 지켜갑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PLUG INTO YOUR SENSES 당신과의 교감을 위해

THE GENESIS GV60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전비 및 등급 ▶ 4WD 20인치:복합4.3km/kwh(도심:4.6km/kwh, 고속도로:4.0km/kwh) | CO₂배출량:0g/km | 1회충전주행거리:380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697V(111.2h) | 공차중량:2,100kg ▶ 4WD 19인치:복합4.5km/kwh(도심:4.8km/kwh, 고속도로:4.1km/kwh) | CO₂배출량:0g/km | 1회충전주행거리:400km | 축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697V(111.2h) | 공차중량:2,095kg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전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시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제네시스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긴축 발작’ 사이 눈치 보는 증시 새해 침체 속 ‘베어 마켓 랠리’ 기대

1월 초 5일간의 눈부신 폭등, 환화에 가득찼던 5월 고점, 이후 지지부진한 신(新) 박스피. 올해 코스피 시장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분석하면 이렇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세 상승장은 상반기에 끝났고, 하반기 들어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와 이에 따른 긴축 발작(테이퍼 텐트럼) 우려, 원자재발(發) 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를 계속 수렁으로 끌어내렸다.

11월 들어선 ‘상대적 박탈감’이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미국 주요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3000선에서, 코스닥은 1000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익 추정치 상승세가 꺾인 데다, 연말 대주주 회피 매물을 감안하면 올해 국내 증시에선 ‘크리스마스 랠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자조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맴돌 정도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가 2800에서 340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스피 주가 순이익비율(PER) 대비 ‘역사적 저점’까지 하단을 열어두고, 우호적 장세가 펼쳐지더라도 올해 기록한 전 고점(3316)을 압도적으로 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업 실적 역시 상승세가 둔화되는 전형적인 ‘침체 국면’이 시작됐다는 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다만 침체 국면에서 ‘밸류에이션’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베어 마켓 랠리’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시 경제 상황은 한때 긍정적인 전망이 대세였지만, 여전히 혼란한 상태다.

최근 경기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고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안정적인 국면을 이어가는 가운데, 경계감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인플레이션 우려는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라기보단 ‘에너지 가격 급등’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에너지 원자재 인덱스는 올해 초 대비 10월까지 2배 가까이 급등한 반면, 비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원자재 가격 급등세를 이끈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모두 10월 말을 고점으로 하락 안정 추세다.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돌진하던 국제 유가는 잠시 80달러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다. 천연가스 역시 러시아가 공급량을 늘리며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한 상태다. ‘대란’이 벌어졌던 중국 석탄 가격은 한 달 만에 반 토막 났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천연가스에 이어 각종 금속 가격이 하락했고, 유가도 (배럴당) 80달러대에서 안정화 되고 있으며, 발틱운임지수(BDI) 등 물류 비용 가격도 이미 하락 반전했다”면서 “많은 것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일부 요소는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테이퍼링 우려는 시장에서 가장 환영할만한 방식으로 해소됐다. 지난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는 현재 월 1200억달러(약 141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를 매월 150억달러씩 줄여 내년 6월 종료하되, 내년 이후 경기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기로 결정했다. 물가 상승 역시 ‘일시적’이라는 관점을 유지했고, 금리 인상에는 ‘인내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예상과 완전히 부합하는 의견이었다. FOMC 이후 미국 증시는 안도 랠리를 시작해 연일 이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물가 급등으로 조기 금리 인상이 이루어져 시장이 큰 충격을 받는 ‘테이퍼 텐트럼’(긴축 발작) 우려가 사라진 덕분이다.

한 증권사 트레이더는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임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으며, 차기로 언급되는 라엘 브레이너드 이사 역시 ‘비둘기파’에 속한다”며 “1조 달러(약 1200조원) 규모 인프라 예산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며 낙관론이 아직은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긴축 발작’ 우려가 재점화하는 계기가 됐다. 10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6.2% 급등해 시장 예상치였던 5.9%를 크게 뛰어넘었다. 1990년 이후 30년만의 최고치이기도 했다. 안정화 추세였던 근원 CPI 역시 4.6%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수요 회복-공급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신호라는 게 시장의 해석이다. 최근 국제 금값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 추세인 것 역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아직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코스피 내부의 우려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큰 추세가 경기 둔화로 돌아선 이상 최근 2년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는 다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하반기 코스피 약세는 코스피 이익 추정치 전망 하향 조정

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월 초 이익 추정치 전망 하향 조정이 시작되며 상승 동력을 잃었고, 7월 이익수 정비율(이익 추정치 상향 기업 수를 하향 기업 수로 나눈 비율)이 꺾이며 지수도 추락을 시작했다.

사실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난해 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눈부신 성과를 냈다. 2020년 말 추정했던 2021년 코스피 순이익의 전망치는 전년대비 40% 성장한 130조원대였는데, 실제로는 90% 성장한 17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망치는 190조원 안팎이다. 10%가량 성장이 예상된다.

이익 추정치 전망 하향 조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속도나 기울기는 둔화하고 있다. 일단 내년 1분기를 전후해 하향 조정이 마무리될 거라는 평가다. 2022년초부터 증시에 반영이 시작될 하반기 및 2023년 전망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다.

올해 170조, 내년 190조원의 코스피 순이익은 이전과 비교에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전 코스피의 황금기였던 2017~2018년 코스피 연간 순이익이 155조~156조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박스피가 다시 시작된 건 이익 전망치 하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조정 때문이었다.

KB증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4.6배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순이익비율(PER)은 현재 10.1배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다. 긴축에 대한 글로벌 우려가 팽배했던 상황에, 한국은행이 매

분기 상승에 나서며 실제 긴축에 나서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결과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테이퍼링이 시작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오르고 있다. 유동성 장세는 지나가고 올해 하반기부터 긴축 조정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란 평가다. 게다가 내년 하반기 이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평균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5개월 전부터 국내 증시는 악영향을 받는다. 2022년 6월 테이퍼링 종료 이후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시기를 저울질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2022년 하반기 중 인상이 유력시되면, 코스피는 4~5월경부터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상반기까지는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하반기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공포가 시장에 지속적으로 하락 압력을 줄 거란 이야기다.

코스피가 하락 추세로 돌아서 1년 내내 약세를 보일 거란 전망은 아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베어 마켓 랠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긴축 조정 이후엔 반드시 반등 랠리가 뒤따랐고, 2022년에 이런 장세가 펼쳐질 거란 전망이다.

베어 마켓 랠리는 지난 2020~2021년 사이의 이익 전망치 폭등에 따른 주가 상승과는 다르다. 이익 전망치는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신 PER로 대표되는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며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 구조를 띤다.

공통적으로 지목되는 핵심 변수는 중국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경기 부양에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KB증권에 따르면 중국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 아래로 떨어졌다. 시진핑 주석의 연임과 함께 경기 확장정책이 진행될 거란 예상이 많다.

중국의 확장정책은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해왔다. 하이투자증권은 “올해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은 중국 리스크가 국내 증시와 환율에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중국 정책이 완화적으로 전환된다면 PER 할인이 멈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다시 급등하고 있는 달러 가치는 외국인 수급과 이어지는 이슈다. 10월 이후 약세를 보였던 달러인덱스는 최근 2년 만에 전 고점 갱신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테이퍼링이 시작됐고, 영국과 호주가 예상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한 증권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반도체를 비롯해 2차전자·콘텐츠·바이오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며 국내 산업 체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며 “수출 비중 등의 이유로 중국과 한 덩어리로 묶여 저평가받고 있는 현 상황이 개선된다면 내년 이익 전망치 둔화에도 지수는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인베스트조선 기자



당신의 봄

삼성화재 좋은보험사전

보험 [보:험]

아프면 찾는 것. 이제는 아프지 말라고 찾는 것

나 “보험”으로 건강관리 하잖아~

삼성화재 애니핏으로
오늘부터 건강관리 시작하세요!

검음수만큼 포인트 적립, 적절한 포인트로 보험료 결제는 물론 병원 예약, 건강검진 예약, 질병 정보 검색과 마음챙김까지!

* 이용 대상 : 삼성화재 건강보험 가입 피보험자만 15세 이상, 본인명의 스마트폰 소지자

* 장기 목표 달성시 매일 최대 100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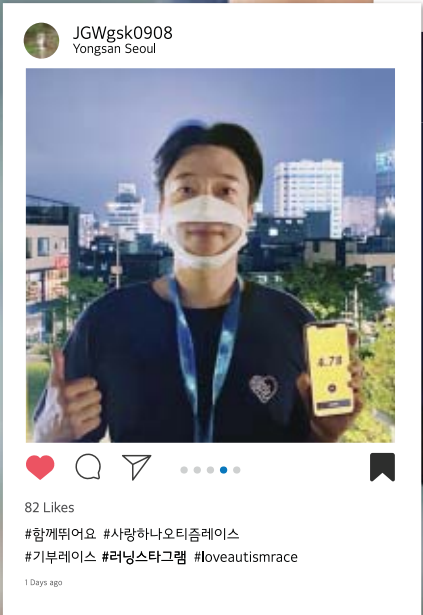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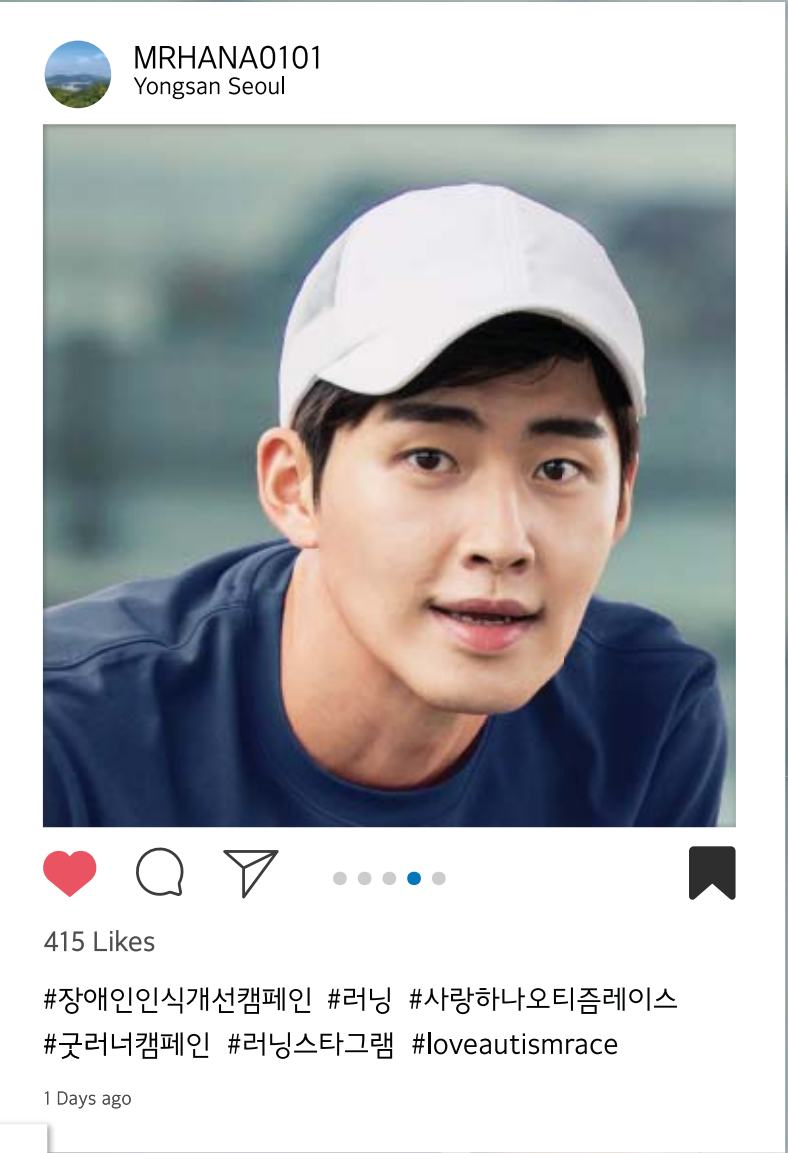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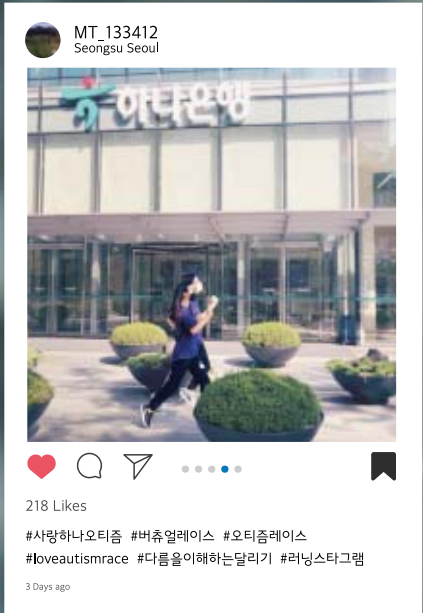
삼성화재 RC에 도전해 보세요!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1-19650호 (브랜즈컨택트, 21.09.30~22.09.29)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국내외 임직원 530여명 레이스 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달립니다

자폐인과 당신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아가는
4.2km의 달리는 응원석,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세상을 향한 그들의 도전이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 하나, 오티즘 레이스

하나은행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위해 마련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커머스에서 ‘메타버스·NFT’로 전장 이동... 투자 키워드는 팬덤·코인·엔터

메타버스
NFT
대해부



‘두나무와 하이브의 지분 파트너십’ ‘카카오, 넷마블 자회사에 지분 참여’ ‘네이버, 손정의와 AI 동맹’ ‘CJ, SM엔터 인수 추진’ ‘엔씨, NFT·블록체인 접목 게임 개발’...

하반기 투자 시장에 등장한 굵직한 소식들은 각각 결이 달라보여도 맥락은 하나로 연결된다. 키워드는 메타버스 그리고 NFT(대체불가토큰)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네이버와 카카오를 주축으로 한 커머스 각축전이 한창이었다면 시장은 이제 가상공간을 채울 새로운 콘텐츠 경쟁으로 건너가고 있다.

투자업계 관심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행보’에서 ‘돈 많은 두나무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옮겨왔다. 그 청사진엔 언제나 ‘메타버스’가 깔려있다. 압도적 사업자가 없는 판에 두나무가 유망주로 떠오르고, 하이브와의 협업으로 밀그램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메타버스와 NFT가 산업 트렌드의 변곡점이란 점엔 모두가 공감하지만 아직 개념이 생소하고 모호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NFT의 시장 가치는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 가능성을 확인한 ‘자금’ 이동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이머전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2028년 약 982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57조원)와 비교해 연평균 43.3%의 성장 속도다.

NFT가 대체 뭐길래

NFT는 문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단순히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이 사용처를 정해두지 않고 대량으로 찍어놓은 가상화폐라면 NFT는 단일 사용처와 결합할 수 있게 소량으로 찍어놓은 가상화폐다.

세상에 단 10개만 존재하는 토큰을 발행해 BTS의 인스타 공식 계정 첫 게시물과 결합해 팬들에게 경매를 붙인다고 가정해 보자. 토큰은 해당 게시물이 ‘원조’임을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동시에 게시물 활용을 위한 ‘소유권’도 보장한다. NFT 기술을 통해 ‘복사-붙여넣기’ 한 파일과 구분이 가능한 것은 물론, 언제 만들어져 어떻게 거래됐는지 내역 추적도 가능하다.

NFT 기술을 활용하면 리니지 게임 내에서 수익원에 거래되는 ‘집값검’ 사례를 엔터 산업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도 팬들 내에선 상징적 자산으로 거래될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 ‘가치’의 교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가상 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간 금액으로 환산되기 어려웠던 미술·음악·게임·부동산·금융 등 유·무형 자산들의 수익화가 가능해졌다”라며 “핵심은 NFT를 매개로 디지털 공간에서 일종의 사유재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있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깃발 뽑을 자, 누구인가

두나무와 하이브의 지분 파트너십은

서로가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 업계에선 양사 거래가 물꼬를 트며 메타버스의 대중적 진입도가 가파르게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모호하기만 했던 시장에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거란 평이다.

메타버스 구현의 필수조건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라면, ‘팬덤’은 여기에 시장성을 부여하는 초기 발판이 된다. NFT는 디지털 공간에 사유재산 장부를 만들어냈을 뿐 거래 가치를 부여하는 건 팬덤과 커뮤니티가 제격이란 이야기다.

가상공간 채울 콘텐츠 경쟁 심화 서로 손잡는 이유, 결국 메타버스 시작은 팬덤 갖춘 엔터·게임 될 것

‘세상 모든 것의 디지털 전환’ NFT가 이뤄낼까 관심 집중 시장은 디지털 자산 팽창에 베풀

엔터사 입장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개척자로 부상할 기회다.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팬덤을 끌어모으는 게 수익의 본질이란 점에서 엔터 업계는 NFT 기반 디지털 자본주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자로 꼽힌다. 강력한 팬덤이 있기 때문에 앨범뿐 아니라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IP가 될 수 있다. 가상 콘서트는 물론 미공개 연습 영상까지 모두 수익화가 가능하다. BTS가 메타버스에서 콘서트를 열고 가상 굿즈를 NFT로 판매하면 현재처럼 앨범을 찍고 글로벌 투어를 돌 필요도 없다. 물리적 제약과 함께 원가 걱정이 없는 고마진 상품 시장을 개척하게 된 셈이다.

현재로서는 하이브가 BTS를 발판 삼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까지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주도적 기회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넷마블 손자회사 메타버스엔터에 인먼트에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한 카오엔터의 행보에도 시장의 관심도 상당하다.

선발투자인 네이버가 제페토를 발판으로 어떤 확장성을 보여줄지도 지켜봐야 한다. 기술과 자본 모두 갖췄지만 자체적으로 내세울 핵심 IP는 아직 마땅치 않다. 제페토의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인데 이중 70%가 중국 이용자여서 당장 글로벌 플랫폼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이해진 창업자가 최근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과 손을 잡으면서 승부수를 던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게임사는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건설사 역할을 맡을 거란 기대를 받는다. 펠어비스와 위메이드 등에 이어 엔씨소프트도 NFT 행렬에 참여했다. “내년 NFT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게임을 출시할 것”이라 밝히자마자 엔씨소프트 주가는 장중 최

대 29%까지 치솟았다.

메타버스·NFT와 현실 자산 간 동기화가 진행될수록 코인 거래소들은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두나무 몸값은 반 년 만에 1조원에서 10조원까지 수치 상승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업체 등 ‘음지’의 많은 시장 관계자들이 두나무가 물꼬를 터주길, 주도권을 갖고 와주길 바라고 있다.

코인판, 음지 밖으로 나온다면...

금융권에선 NFT를 활용한 유통화 상품 등 새로운 플랫폼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아직은 초기 국면이며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1~3개월 미만 단기 자금 유통화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시장이 성숙할수록 활용 가능 자산과 금융상품 폭이 넓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NFT가 비트코인·이더리움과 달리 유통성 규모가 작아 자금 여유에 따라 저가 처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로 거론된다. 반면 담보물 처분에 따른 손실 발생 단점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블록체인 상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돼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고 시장 가격에 대한 접근성도 실물 자산 대비 높은 편이다.

증권을 찍고 이를 투자자에게 팔아 자금을 조달, 보유자에 이자율이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전통 자본시장 영역이 NFT에 침범당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NFT와 결합 가능한 잠재 자산을 찾는 시도도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선 결국 과격으로 화해 개념까지 흔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가능성까지 회자되고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코인 거래소는 코인 판 내에서 중앙은행·거래소·예약결제원·증권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시에 금융당국 역할을 분산 수행할 수 있다”며 “통상 3~6개월간 수백명이 투입될 일을 SW가 일괄 대체하면서 국경 개념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너도나도 메타버스, 결국 ‘모든 것의 디지털화’를 의미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유력 사업자들이 추려지는 가운데 대기업도 성격을 가리지 않고 소액 투자라도 참여해 이 새로운 ‘유니버스’에 발을 들일 모양새다. 앞으로 경영 전반 활동이 디지털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썩을 이하다 나섰던 M&A도 같은 선상에 있다. 수백조 규모 공간을 내세워 원격 업무용 SW 및 하드웨어(HW) 업체들을 사들였다.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변경,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다. MS가 향후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실상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평이다.

같은 해 HW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이종 간 결합’이 진행됐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칩 수요에 대비해 통합반도체(SoC) 개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메타버스와 함께 태동할 XR 기기 시장과 같은 새로운 응용처를 감안해 반도체 시장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란 목소리도 높고 있다.

아직까진 NFT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청사진’에 불과하단 점에서 회의론도 상당수 있다. NFT 소비 경험이 일시적 거품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는 “NFT가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고 평했다. 수많은 변수

에 따라 시장이 빠르게 냉각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럼에도 NFT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과도한 낙관론이 판을 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팽창에 베풀는 쪽은 분명 늘고 있다.

하지은·정낙영 인베스트조선 기자

로지의 선택! 라이프는 신한라이프, 주식투자는 신한알파

신한알파에서
국내 주식하면
평생 수수료 혜택!

상담전화 | 1588-0365
홈페이지 | www.shinhaninvest.com
◀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하세요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한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공자가 보호받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주식 거래 시 모바일 기준 표준 수수료는 0.18916399%(거래금액, 매체별 차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 신한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분대상금융기관이며 신한카드의 부분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신한금융그룹 그룹사들은 별도의 법적 계약이 없는 한 상호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4392호(2021-09-14 ~ 2022-09-13) ※신한금융투자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0928호(2021.9.28 ~ 2021.12.31) ※신한라이프 준법감시인 심의결 202109-118(2021.09.24 ~ 2022.09.23)

라이프에 즐거움을 더하다 신한라이프 신한금융투자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Future is Calling

중학교 1학년 육상선수 배운진과 최명진

“가장 힘들 때요? 열심히 뛰었는데 간발의 차이로 기록을 깨지 못했을 때 가장 힘들었어요^^”

“친구들과 놀고 싶나구요? 당연히 놀고 싶죠 근데 놀고 싶다고 다 놀면 기록은 영원히 못 깰 것 같아요ㅎㅎ”

어리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한계에 도전하는
배운진, 최명진 선수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KB금융그룹은 두 어린 선수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기본으로 세상을 바꾸다
KB금융그룹

부원여중 100m 육상선수 배운진

이리동중 100m 육상선수 최명진

 KB 금융그룹

부동산·주식·코인?... 감상에 투자 더한 MZ세대의 ‘아트테크’

부동산은 더 이상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 뜨거웠던 주식 시장의 성장세는 둔화했다. 투기판에 가깝던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은 여전하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오갈 데 없는 자그들은 새로운 투자처들을 발굴했다. 그 결과 올해 가장 뜨거운 투자처로 떠오른 시장이 과거의 전통(?) 자산을 대체하는 ‘미술품’ 시장이었다. 자산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미술품 시장에 MZ세대가 큰 손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고(故) 이견희 회장이 남긴 역대 최고 수준의 작품들이 전 국민적 눈길을 끄는 상황에서 내로라 하는 유명 인사들이 미술품 감상과 구매 행렬에 동참하는 행태가 미술품 시장 열풍에 한 몫 했다.

최근 미술품 시장에 등장한 MZ세대들은 예술품을 단순히 ‘소비’하거나 반대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행태들이 혼재하는 특징을 갖는다. 일종의 문화로 자리 잡은 예술품 구매에 동참하며 동질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과거 명품과 한정판 의류·잡화를 재판매(리셀)하던 방식 등의 투자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다. 즉 소비의 트렌드와 투자의 트렌드가 맞물렸고 새로운 투자층이 합류하며 미술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와 화랑미술제, 아트부산 등은 관람객 숫자는 물론 미술품의 판매금액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KIAF에는 올해 입장객 약 8만8000명이 찾았고 매출액은 약

**급격히 성장하는 미술품 시장
주식·코인 대체제로 주목받아
희소성 열광하는 MZ세대에 ‘딱’**

**단순 투자 접근엔 우려 목소리
과세 강화 땀 버릴 꺼질 수도**

65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판매액인 총 310억원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다. KIAF 현장에는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RM’, 전지현·이병헌·이민정 부부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열기를 실감케 했다.

최근엔 현대·신세계·갤러리아·롯데 등 주요 국내 백화점이 모두 미술품 판매를 시작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미술품 전시·판매·중개·임대 및 컨설팅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백화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작가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이우환, 박서보, 김창열, 정상화, 윤형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비롯해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 줄리안 오피(Julian Opie),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나라오 시토모(ならよしもと) 등 외국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해 판매하기도 한다. 백화점들의 이 같은 전략은 작품 판매로 수수료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적보다 명품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데 있다. 희소성 있는 작품을 통해 명품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미술품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경매에 참여하는 방식도 빼놓을 수 없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경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세대의 유입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엔 일명 ‘수확 1타’ 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가 약 36억원의 일본 아티스트 ‘구사마야요이(くさまやよい)’의 작품을 약 36억5000만원에 낙찰받으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MZ세대의 유입과 큰 손들의 활약으로 미술품 경매 업체들의 몸값도 치솟았다. 유일한 상장회사인 서울옥션은 지난해 435억원의 낙찰액을 기록했는데, 올 상반기 이미 700억원이 넘는 낙찰액을 기록하며 전년 수준을 뛰어넘었다. 주가는 지난해 초 주당 3000원대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3만원을 웃돌며 상장 이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옥션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미술품 경매 전문업체 ‘K옥션’도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K옥션은 지난 2016년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사실 미술품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미술품에 대한 투자 방식도 다변화했다. 최초 렌탈을 통해 미술품을 감상하다 최종 구매로까지 이어지고 뒤이어 재판매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미술품의 지분을 나눠 수많은 투자자들이 공유하는 지분 투자 방식도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대체불가토큰(Non Fungible Token) 등 예술품 등의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 블록체인화해 거래하는 방식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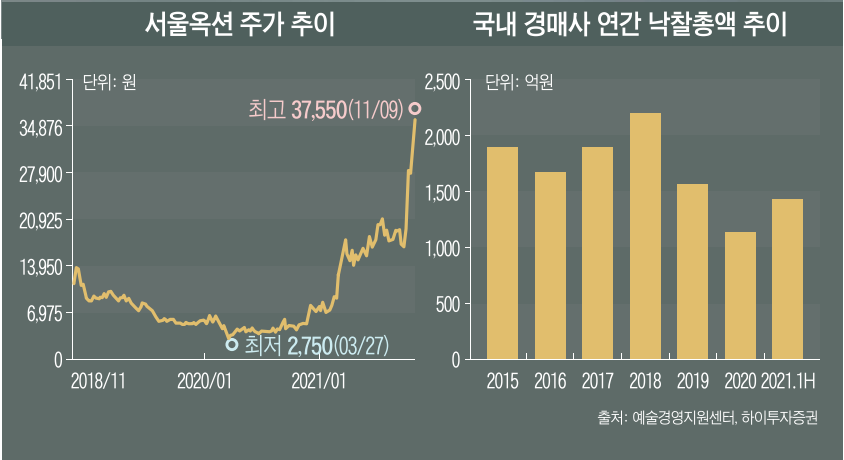
했다. 기존 전통의 투자자산에 비해 온라인, 오프라인 미술품의 과세의 영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각에선 과도한 열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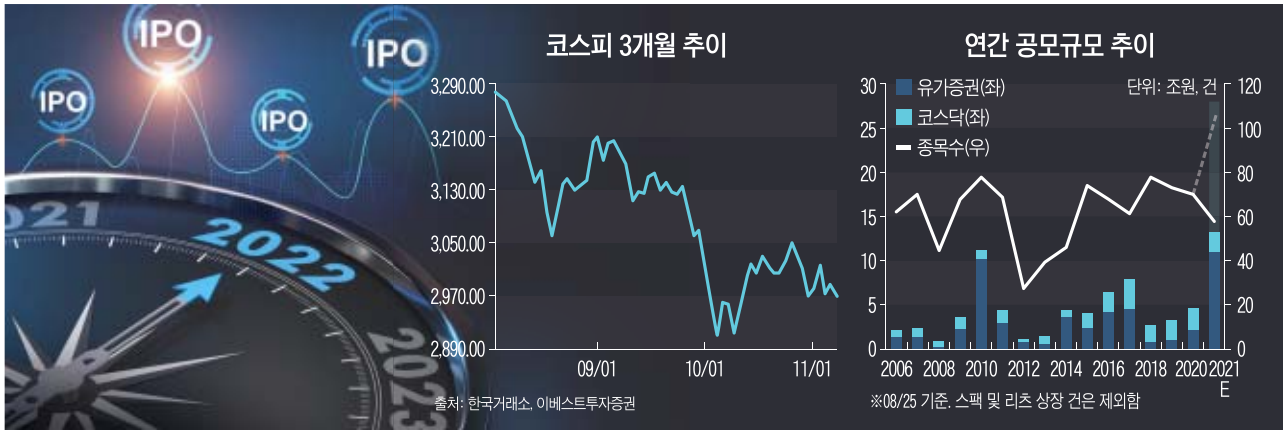
현재의 열기가 예술품 시장의 확대와 아티스트의 처우 개선 등이 선순환 고리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보다, 단순한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일부 예술업계의 우려도 이해할 만하다. 또한 미술품의 매매 및 경매 또는 과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품 관련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등 한국에선 다소 생소한 사업 전략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있다.

투자는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미술품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은 다양한 외부 요인들이 있었지만 사실 투자의 영역에서 주목받으며 성장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며 “시장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과세 확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품으로서의 접근과 투자로서의 접근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지웅 인베스트조선 기자



내년 IPO 유망株는 배터리·유통... 過수요 유지될 듯



**VC 엑시트 수요에 ‘전망 장밋빛’
LGES·SK온·썬닷컴에 풀림 현상
‘카카오 패밀리 효과’도 이어질 듯**

최근 2년간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는 쉬이 식지 않는 분위기였다. 2023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갈 가능성이 짙다. 지난 2년간 벤처캐피탈(VC) 투자가 활발했던 만큼 투자자금회수(엑시트) 수요가 많은 것인 데다 하이일드펀드나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혜택이 이어질 2023년까지 기관 및 개인 수급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2022년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릴 미래 유망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중순부터 상장 준비에 착수한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기업’과 썬닷컴(SSG닷컴) 등 ‘유통기업’ 등이 거론된다. 카카오그룹 계열사 상장 소식도 화두다. 아직 주가 추이와 업황 등을 고려해 상장 시기를 조울 중인 발행사들도 많다.

올해 주목받던 카카오뱅크 등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상장 이후 무리 없이 공모가 이상의 주가를 기록했다. 일단 내년에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년간 VC업계에 정부 자금을 비롯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자연스레 이들의 엑시트를 위해 상장 체비에 돌입하는 벤처기업들이 상당할 것이란 예측이다.

또한 기관의 수급도 반쳐줄 것이라는 평가다. 공모주 하이일드 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는 세제혜택과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받는다. 공모주 열풍이 불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두 펀드의 혜택은 2023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적어도 2023년까지는 공모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유지될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일부 정책 전환을 고려하고 있긴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주와 친숙해진 점도 내년 변수로 꼽힌다. 균등배정제 도입 이후 공모주 투자가 대중화하며 개인 수요 기반도 탄탄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한 증권사 IPO 담당 임원은 “올해 IPO 업계만 따졌을 때 최고의 수확은 개인들이 공모 청약에 대비해 대부분의 주요 증권사에 계좌를 터놓고, 언제든 청약에 참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라며 “처음엔 가(假)수요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청약증거금 단위가 달라진 걸 보니 과(過)수요라고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IPO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산업으로 배터리사와 유통사가 꼽힌다.

특히 연내 상장이 불투명해진 ‘LG에너지솔루션’과 최근 사명을 변경한 SK그룹 배터리기업 ‘SK온’은 기관들도 비중 있게 살피고 있는 종목이라는 전언이다. 공모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다른 공모주 청약 참여하는 데 앞서 시기 조율을 해야해서다.

증권업계에서는 신세계그룹의 이커머

스업체 ‘썬닷컴’과 마켓컬리의 상장 성사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이들은 최근 주관사를 선정해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 썬닷컴이 올해 4월 인수한 여성 패션 플랫폼 ‘W컨셉’ 등을 어떻게 활용해 청사진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마켓컬리에 대해서는 ‘영업적자’ 문제 해결 추이를 살피려는 분위기다.

‘카카오’ 효과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인 전망이다. 카카오그룹 계열사들의 잇단 상장 흥행에 업계에서는 “일단 기업명에 ‘카카오’가 포함되면 청약이 늘리라”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내년 하반기쯤으로 계획돼 있다.

다만 글로벌 변동성이 심해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증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투자회수 목적의 상장이라면 공모가를 높게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의 증시 호황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고평가된 기업가치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란 평이다. 이에 해운업, 건설업 등 업황이 다소 꺾인 발행사들은 주가 향방을 살피며 상장 적기를 가늠하고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부터 내년에도 어떻게 IPO 시장이 흘러갈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상장 수요와 투자자들의 공모주에 대한 긍정적 학습효과를 감안하면 내년도 IPO 시장이 좋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지는 인베스트조선 기자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클라우드컴퓨팅

게임

밀레니얼테마

리튬&배터리

인공지능

로봇

원격진료

디지털헬스케어

클린테크

소셜미디어

사물인터넷

핀테크

GLOBAL X

ETF 랩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2021 KOSPI 100

2021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
연금자산/은퇴설계부문 선정
주최·주관: 중앙일보·포브스코리아

2021 K-NBA

202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증권부문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 1위
주관사: 2020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1588-6800] ■ 투자자는 랩계약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랩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랩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랩여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 Global X ETF 랩계약의 수수료는 일반형 연2.4%(분기 0.6%후취), 혼합형 연1.2%(분기 0.3%후취), 성과보수 부분은 고객과 개별 합의입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외주식/ETF 거래 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현지세율로 원천징수되며, 현지세율이 국내보다 낮을 경우 차액만큼 국내배당 세율이 적용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 배당금 발생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을 경우 차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RP 운용 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소득세로 과세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1468호 (2021.03.25~2022.03.24) ■ 미래에셋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1-1012호 (2021.10.01~2022.0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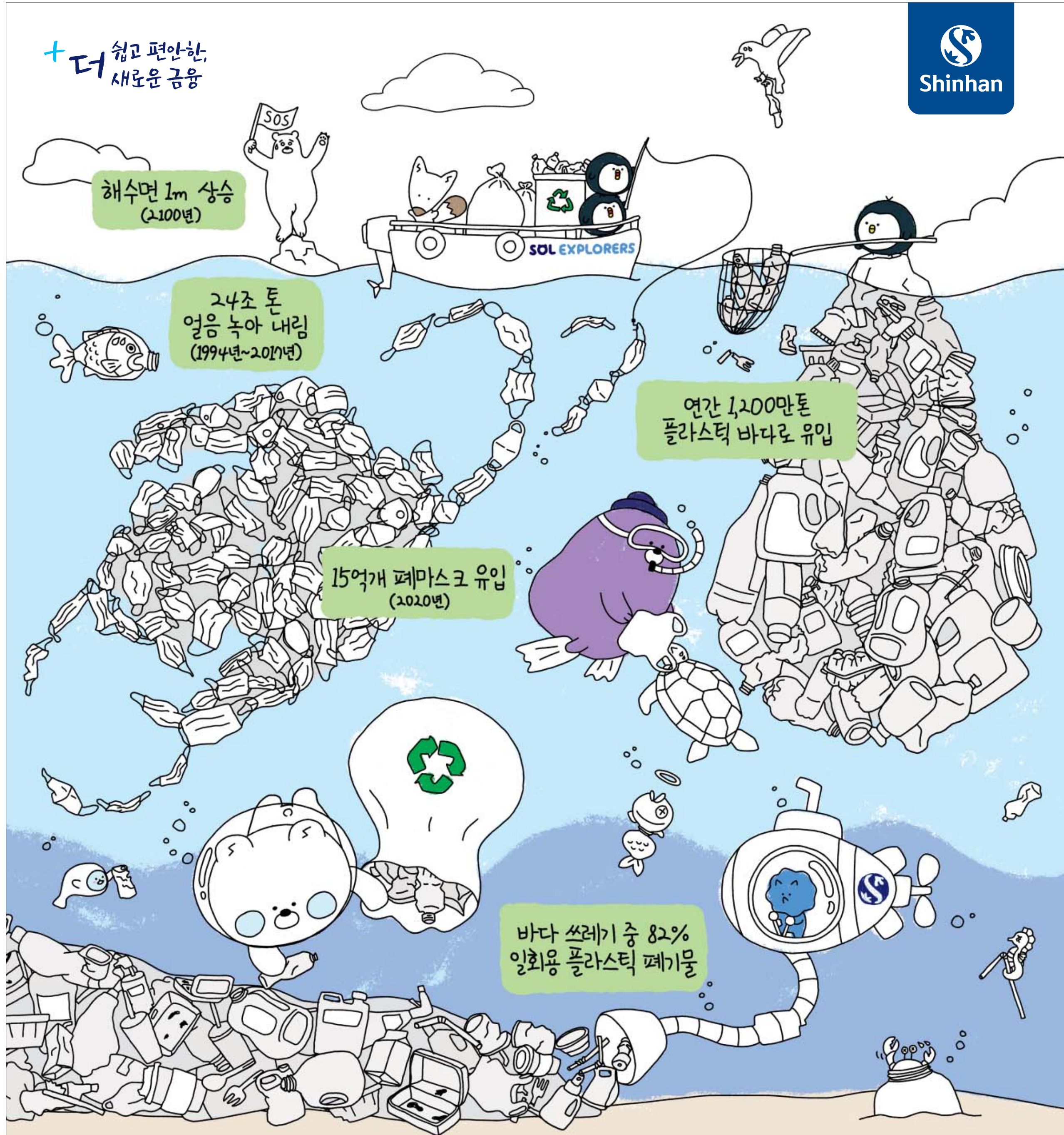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금융

Shinhan



SOL EXPLORERS와 함께해요!

일회용기 GOOD BYE
다회용기 GOOD BUY

탄소와 해양 쓰레기로 신음하는 바다를 위해
친환경 금융 실천, 신한은행이 앞장섭니다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
- 업계 유일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 위한 환경부 업무 협약
- 업계 최초 무공해차 보급 확대 위한 ESG 상품 및 녹색 투자 위한 ESG 채권 발행
- 인천시 친환경 정책 3無(자원 낭비,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활동 동참

신한금융그룹의 대표 캐릭터인 **SOL EXPLORERS**는 북극성에서 지구별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쏘라 탐험대 친구들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준법감시필 2021-0947 (준법감시파트, 2021.5.31~2022.5.30)

인생맞춤, 인생보험

내 인생을 책임질 보험, 한눈에 정리하다

삼성생명 인생맞춤보장설계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삼성생명의 컨설턴트와 함께 인생맞춤보장설계를 받아보세요!

모바일로 빠르게

카카오톡 알림과 문자로
나만의 보장내역을 빠르게 확인

한번에 편하게

보험사와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모든 보장을 한번에 확인

믿으니까 든든하게

삼성생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나에게 꼭 맞는 보장설계 컨설팅까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 보호금융상품: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비보호금융상품: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의 거부 또는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삼성생명

네이버·신세계·현대차... 내년 대기업 ‘리츠 전쟁’ 벌어진다

시장 활성화·SK리츠 성공 ‘신호탄’
자산 유동화 수단으로 수요 확대
리츠 활용 두고 물밑 논의 활발
투자자는 장기적 성장성 따져봐야

주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SK리츠의 성공적 상장 이후 신세계·네이버 등 대기업들 내부에서 리츠 활용 방안을 두고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과거 일부 리츠는 모회사의 비유량자산을 담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 만큼 투자자는 편입된 자산의 퀄리티나 운용 계획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데이터센터(IDC) 및 사옥 등 보유한 부동산을 리츠에 담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업을 위한 자금조달뿐 아니라 리츠 주식을 임직원 복지에도 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는 현재 6500억원을 투입해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세중에 짓고 있다. 이외에도 5400억원을 투입한 춘천 데이터센터와 지상 27층 지하 7층 규모의 그린팩토리(제1사옥) 및 지상 29층, 지하 8층의 제2사옥 등을 보유하고 있다. 리츠에 담을 기초자산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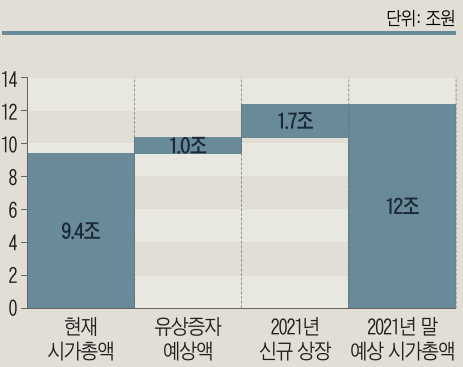
네이버 이외에도 현대자동차그룹, GS그룹 등이 리츠 스테디에 들어간 곳들로 시장에서 거론된다. 리츠 업계가 성장하면서 자산 유동화 수요가 큰 대기업들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리츠 시장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2018년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



국내 상장리츠·인프라펀드 시가총액과 KOSPI 대비 비중

2021년 상장리츠·인프라펀드 예상 시가총액



대기업 리츠 사업 현황

구분	내용
롯데	-롯데쇼핑 14개 점포 편입한 자산규모 233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리츠
SK	-서린빌딩, SK네트웍스 주유소 100여개 편입해 SK리츠 상장(09.14) -종로타워 편입 예정
두산	-자회사 디비씨가 분당 두산타워 신사옥을 리츠에 담았다가 코람코자산신탁에 매도
신세계	-신세계프라퍼티를 중심으로 이시스자산운용과 함께 리츠 설립 검토중

출처: 삼성증권, 각 사

안’을 발표한 이후 3~4년 새 성장 가도에 들어섰다. 지난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공모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 ▲예비심사면제 등 상장규정 정비 ▲운용지원 및 양질의 자산 확보 ▲특금·펀드의 리츠투자 규제 완화를 비롯한 투자방법 다양화 등의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어 2019년 9월에 국토교통부가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7개에 불과했던 코스피 상장리츠는 현재 15개까지 늘었다. 2010년 50개에 그쳤던 설립 리츠 수는 올해 9월 기준 302개로 집계됐다. 리츠 자산 규모도 11년 전과 비교해 10배가량 성장한 70조원 수준이다.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자산 유동화에 유연한 상장 리츠 활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대기업이 현재 보유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구조를 살펴보면 일부 지분을 유지한 채 다른 지분을 유동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동화를 통한 조달 자금으로 신 사업에 투자를 하고 다른 일

부로는 부동산의 배당수익 및 자산 가치 상승을 꾀하기 위함인데 리츠는 기존 펀드에 비해 영속성도 있고 추가적으로 자산도 매입할 수 있어 이에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SK리츠의 성공적인 상장이 신호탄을 쏘았다는 관측이다. SK리츠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공모청약에서 공모 리츠 기준 역대 최고 경쟁률(552대1)과 최대 증거금(1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SK그룹의 기업공개(IPO) 중에서도 사상 최고 경쟁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너도나도 ‘리츠 스테디’에 돌입했다는 평가다.

리츠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중 선두주자는 신세계그룹이다. 신세계프라퍼티를 중심으로 이시스자산운용과 함께 리츠 AMC 설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아구단 SSG랜더스’ ‘W컨셉’ ‘이베이코리아’ 등 굵직한 거래를 연이어 단행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풀이다. 신세계그룹은

전국에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등을 보유한 ‘부동산 재벌’로 불린다.

신사업을 모색하며 잇달아 투자를 단행한 GS그룹도 리츠를 논의하고 있는 곳으로 시장에서 언급된다. 올해 GS그룹은 사모펀드(PF) 운용사들과 컨소시엄을 꾸려 바이오기업 ‘휴젤’, 배달 앱 ‘요기요’, 반려동물 전문몰 ‘펫프렌즈’를 공동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GS칼텍스가 보유한 전국 주유소 등 GS그룹의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자산 유동화가 가능하다는 추측이다.

전동화·수소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도 시장에서 거론되는 곳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현대차는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티데이’에서

2025년까지 60조1000억원을 투자해 자동차부문 글로벌 점유율 5%대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신축 중인 GBC(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신사옥은 상징적인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자금 조달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들이 잇따라 리츠 시장을 두드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리츠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신사업 전환 등 자산 유동화 수요 확대 등으로 대기업이 리츠를 검토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내 리츠는 본격 성장의 길목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추세라면 국내

상장리츠는 2022년경 2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의 경우 상장리츠 개수가 20여 개에 도달하면서 관련 지수와 금융상품 개발이 활발해졌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리츠에 편입되는 대기업 자산의 퀄리티와 장기적 운용 전략을 면밀히 살펴야 있다. 롯데리츠의 경우 롯데쇼핑의 비유량자산을 자사의 리츠에 편입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리테일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데 더해 부동산 입지 매력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리츠 담당 연구원은 “대기업들이 상장 리츠에 자산을 담는다고 했을 때 퀄리티와 그 이후의 운용 전략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지수 인베스트조선 기자

이번엔 ‘탄소배출권 쇼크’... 반짝 유행 거듭하는 테마형 ETF

탄소배출권 ETF, 한 달 만에 ‘출렁’
‘高보수 ETF로 수수료 장사’ 지적
수익률 하위 10종목, 모두 테마형

투자업계에서 유행에 따라 ‘우후죽순’상장하는 테마형 ETF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을 추종하며 장기 분산 투자하는 ETF의 취지와 다르며, 유행이 지나면 손실은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유행성 상품으로 지수형 ETF 대비 높은 보수를 받으며 ‘수수료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30일 동시 상장한 탄소배출권 ETF 4종도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상장한 첫날 거래대금이 100억원을 넘겼으나, 상장 이후 한 달간 가격이 13~18%가량 출렁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탄소배출권은 수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자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상승했다. 할당량이 부족한 기업이 연말까지 배출권을 사야 한다는 소식에 투기 세력이 몰리기도 했다. 9월 27일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 가격이 한 달 만에 9% 상승해 사상 처음으로 톤당 64유로를 돌파했다.

그러나 10월 6일 러시아가 에너지 대

란을 꺾는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자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들 거란 전망에 탄소배출권 가격은 8%가량 빠졌다. 이후 가격은 횡보 상태며 60유로를 회복하지 못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주식과 다르게 탄소배출권 자체에는 펀더멘탈이 없고, 정책과 환경에 따라 수급과 가격이 결정돼 투기적인 자금 유출입이 발생한다”며 “가격 변동성이 우려되지만, ETF 자체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 ETF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저감 기술 발달로 탄소 한 단위를 줄이는 데 드는 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낮아지면 배출권 가격은 급락하기 때문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 배출을 적게 해 탄소 넷제로를 만드는 것이다. 친환경을 유도하기 위한 자산이며 투자자가 이에 동참하는 것이다”며 “다만 전 세계가 친환경 기조로 바뀌기 전까지는 가격 하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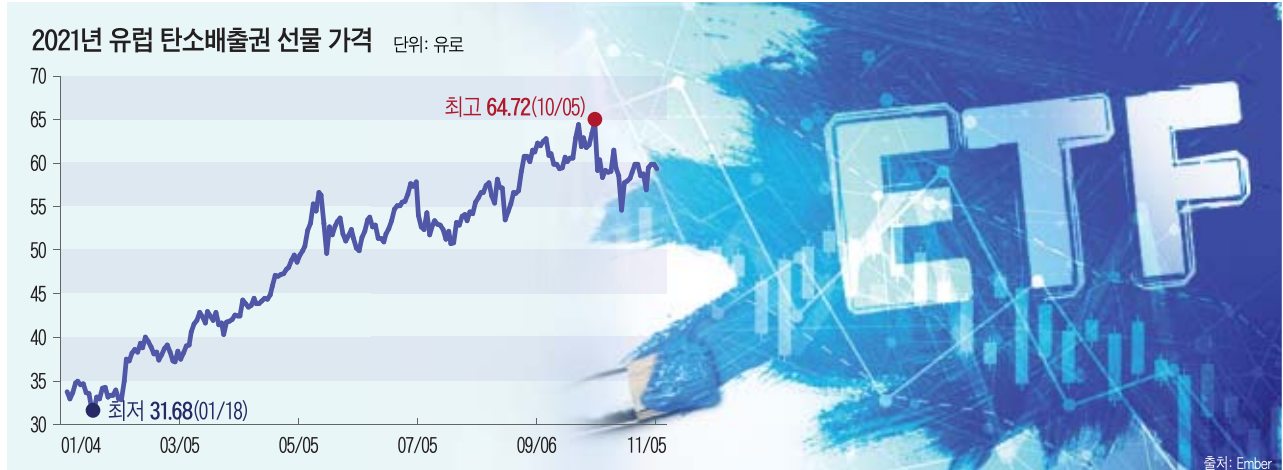
최근 앞다퉈 출시되는 테마형 ETF를 두고 일각에선 운용사가 유행에 편승해 ‘수수료 장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지수형 ETF의 최저보수 인하 경쟁이

일어나자, 낮아진 수익을 상쇄하기 위해 고보수의 ETF 출시에 열을 올리는 거란 분석이다.

테마형 ETF의 총보수는 보통 0.5% 내외다. 반면, 지수형 ETF의 경우 운용사가 가져가는 몫이 0.001%까지 내려갔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는 ETF가 ‘미운 오리 새끼’다. 저보수 ETF 출혈 경쟁에 자사의 펀드가 잠식당한다고 생각한다”며 “펀드만큼 높은 보수를 받지는 못하지만, 테마형·액티브 ETF로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행이 지난 테마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거래가 줄어 상장폐지 위험도 있다. 국내 주식형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하위 10종목은 모두 테마형 ETF가 차지하고 있다. 헬스케어와 바이오 섹터가 8종목을 차지했으며, 가장 낮은 수익률은 -32.49%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자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3분기 실적 부진 우려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분산투자라는 ETF의 원래 취지와는 달리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라 섹터가 흔들릴 경우 큰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일시적으로 유행하고 말 테마인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인베스트조선 기자



출처: Embur

60년

농협 60주년

금융의 모든 순간에
당신과 함께 합니다

NH농협금융

투자자가 처음이야?

투자문화로 와!

투자자가 쉬워지는 브랜드 플랫폼

NH투자증권 모델
하현우

QR찍고
투자가 문화로!

투자자가 문화로 길안내

이색 투자 쇼핑 체험 공간
슈퍼마켓에서 주식도 쇼핑처럼 쉽게!

내 투자성향 MBTI는?
솔루션 센터에서 나만의 투자법으로 만나!

이더스트와 함께하는
문화살롱에서 다양한 투자법을 즐겁게!

나의 투자 능력 레벨은?
게임랜드에서 복잡한 투자를 재밌게!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3947호(2021-08-18~2022-08-17)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식거래} 주식거래 시 수수료는 약0.084%~0.499% (온라인 매매 기준, 거래금 액별/채널별 상이), 비대면거래와 0.01%(모바일증권 기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 기준) *모인원을 초과하는 경합에 대한 제세공과금(22%)은 경합 당첨자 부담이며, 경합 가격은 기탁소득에 포함됩니다. 투자자원금 당첨자의 경우 제세공과금(22%)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첨자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로 지급되며 계좌가 없거나, 계좌 폐쇄 등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첨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첨된 경합을 제3자에게 넘겨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다른 상품으로 교환 환불 하실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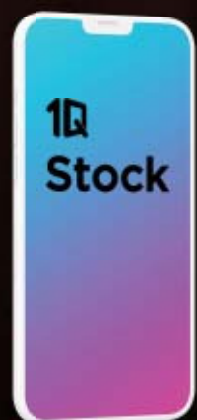


The easy way to invest for anyone
User-Customized 1Q Stock.

하나금융그룹

오직 나를 위한 맞춤
나만의 MTS, 원큐스탁

투자를 핏하게.



1Q Stock *My. Tailored. System.*

하나금융투자

*투자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 필독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산가액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원금손실(0~100%) 발생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국내주식 온라인 매매수수료율은 비대면개설 계좌의 경우 0.0141639%이며 개설점에 따라 상이 *해외주식 수수료는 국가별, 주문방법에 따라 상이(주요국가 온라인 수수료 : 미국0.25%, 중국0.3%), 홈페이지 참고 *미국주식 매매당 주당 0.003USD, 매도 시 0.00051%, 중국주식 매매시 0.01087%, 매도시 0.1% 제비용 부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5198호(2021.11.15~2022.11.14)

손보사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전망... 정부 덕에 ‘땅 짚고 헤엄치기’

코로나로 차량 손해율 준 데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효과 노릇
4대 보험사, 3분기 7000억 순익
땡 본 김에... 업계 M&A도 활발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호재로 작용한 데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실적 상승의 판을 깔아줬다.

손을 대지 않아도 실적이 쑥쑥 오르면, ‘현직 손보사 최고경영자는 인생의 대운(大運)이 들어온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덩달아 손보사 M&A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위기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의 주인공 중 하나로 손보사를 꼽고 있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이 8000억원을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손보사들은 1~2분기에도 증권사의 추경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바 있다.

보험사 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 42.18% 증가했다.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각각 137.47%, 66.41% 늘어났다. 현대해상은 지난해 3분기 강남 사옥 매각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났다.

손보사 호실적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자동차 손해율 하락이다.

빅4 손보사의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화재 79.2%, 현대해상 79.3%, DB손보 77.8%, 메리츠화재 75.8%로 전년 동기 대비 5~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0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손보사 실적 악화의 주범이었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면서 실적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손해율이 개선된 데에는

코로나 영향도 한몫했다.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줄면서 자연스레 사고율이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는데 영향을 줬다.

다만 단순히 이동량이 줄어든 것만이 손해율 개선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핵심은 정부의 ‘친 손보사 정책’이었다. 손보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실적 상승의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이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평가다. 스쿨존에서 사고시 운전자에게 기존 범규 이상의 무거운 징벌을 주는 게 핵심으로, 이로 인해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했다. 덕분에 운전자보험은 최근 2년새 손보사 실적을 키워준 효과상품이 됐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만 각각 102만건, 109만건의 운전자보험 가입이 이뤄졌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의 효과 노릇을 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내 제한속도를 대중교통이 다니는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스쿨존 등은 시속 30km으로 제한하는 법이다. 이 기간 도심 내 사고율이 15%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사고율이 줄어들며 자연스레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폭 떨어졌다.

여기에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규제도 손보사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줬다. 해당 법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액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법으로, 손보사 사업비율이 업계 평균 1%포인트가량 줄고 업체별로 최대 5%포인트 줄어든 곳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 개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리인상에 따른 실적개선 예상은 손보사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초부터 꾸준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는 모든 손보사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며 “금리 상승의 수혜가 기대되고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보유했음에도 저평가된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에 정부 규제에 인해서 손보사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자 M&A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달 프랑스BNP파리 그룹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의 지분 94.54%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KB금융과 ‘리딩금융지주’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함도 있고 또한 최근의 손보사 실적개선과 더불어 디지털화란 큰 흐름에 발을 담그기 위함이란 해석이다. 비단 신한금융뿐 아니라 카카오 등 IT업체들도 손보사 진출에 나서면서 손보사 M&A 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손보사들이 활짝 웃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존재한다. 코로나 여파로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손보사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크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2017년 자동차 손해율이 폭등하며 ‘보릿고개’를 겨우 넘어온 손보사들이 당장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손보사 관련 법			
시기	정책	내용	효과
2020년 3월	민식이법	스쿨존 30km/h 초과로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고시 1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운전자보험 가입 급증 1분기 102만건, 2분기 109만건
2021년 1월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규제 (1200% 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액 1200% 이하로 제한	사업비율이 업계 평균 1%포인트 가량 줄고 업체별로 최대 5%포인트 줄어
2021년 4월	안전속도 5030	도심부 일반도로로 속도 50km/h 주책가 이면도로 및 보호구역 속도 30km/h	차보험 손해율 개선
2021년 9월	금리 인상	기준금리 0.25% 상승	자산운용 수익 개선

손보사 3분기 순이익			
주요상장 손보사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증감율
삼성화재	1,956억원	2,781억원	42.18%
DB손보	926억원	2,199억원	137.47%
현대해상	1,310억원	1,386억원	5.80%
메리츠화재	1,054억원	1,754억원	66.41%
합계	5,426억원	8,120억원	49.65%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주요 손보사 핵심 최고경영자의 임기가 대부분 올해 및 내년 중 만료된다는 점도 변수다. 이들 입장에서 연임 및 이전 경영자와의 차별화

를 위해서라도 이익 규모를 더욱 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손보사 배불리라는 비판이 없지 않다”며

“연임을 앞둔 경영자 입장에서는 절대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선우·송하준 인베스트조선 기자

‘퇴직연금 ETF 신탁’ 잔고 지키기... 은행 수익성엔 별로

총 퇴직연금의 절반 130조 보유
실시간 매매 어려워 신탁형으로
수익성 낮아 관리 부담만 늘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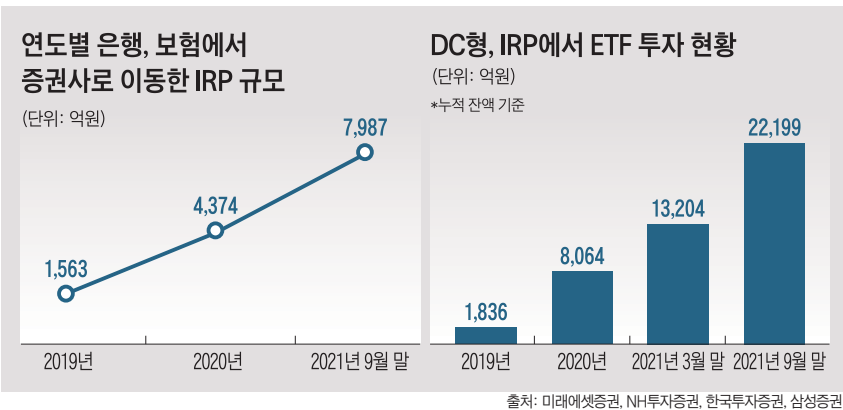
그간 금융권에서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였던 ‘은행 퇴직연금 계정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가 가능해지게 됐다. 은행들은 연내 관련 신탁상품을 선보이겠다는 입장이다. 전체 퇴직연금의 절반인 130조원을 보유한 은행들이 ‘집 토끼 지키기’에 나섰다라는 평가다.

다만 은행 퇴직연금 ETF는 증권사와 비교해 실시간 매매도 어려운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수익도 증권사와 나뉘먹어야 한다. 그래도 증권사로 빠져나가기만 하던 퇴직연금 잔고 지키기엔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은행권의 기대감이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서비스를 연내, 가급적 빨리 시작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BNK경남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들도 퇴직연금 ETF 신탁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은행이 ‘신탁 ETF 투자’가 허용되자마자 보폭을 빠르게 넓히는 건 130조원에 이르는 은행 퇴직연금 잔고를 지키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255조원인 전체 퇴직연금 잔고 중 은행은 130조원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퇴직연금 투자 열풍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자금이 급격히 빠지고 있다. 미래에셋·NH·한국투자·삼성 등 4대 증권사에 따르면 은행·보험에서 이들 증권사로 옮겨온 IRP 규모는 2019년 1563억원에서 지난해 437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7987억원에 달한다.

다만 증권사와 완전 경쟁이 가능한 구조는 아니다. 은행 ETF 신탁 시스템은 증권사가 ETF를 매입하는 과정 앞뒤로 은행이 추가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때문에 증권사 상품보다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ETF에 투자할 때 신탁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권사들은 ‘IRP계좌 보관수수료 무료’ 등을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는 상품 수수료만 챙기더라도 손실을 매우 고도 남는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상품 매매 역시 하루 뒤에 이뤄진다. 이 과정을 대행하는 증권사도 중간에 수수료를 수취한다. 은행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그냥 증권사로 연금계정을 이동시킬 유인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실시간 매매 중개는 증권사의 고유 업무영역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이는 막힌 상태다.

고객 불편이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은행들은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은

행권 관계자는 “증권사에서는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은행 고객은 펀드 상품에 익숙하기 때문에 관행을 것”이라며 “퇴직연금 자산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운용하는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신탁 ETF를 통해 은행들이 벌어들일 비이자이익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은행들이 신탁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할 가능성이 낮은 까닭이다. 은행 계정 퇴직연금 시장의 상당부분을 자산운용사들이 내놓은 타깃데이트펀드(TDF)가 장악한 상황에서, 증권사들 역시 수수료를 더 붙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은행 수익성엔 큰 도움이 안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다. 직접 투자를 경험한 고객군이 늘어난 상황에서 잦은 매매 지시로 퇴직연금 관리 부담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온다.

한 은행 PB센터장은 “퇴직연금 ETF는 계속 커져가는 시장이라 그간 은행 입장에서 고객 유출을 막을 방법조차 없었다”며 “퇴직연금 사업을 하는 은행이라면 모두 ETF 신탁 상품을 출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준·이지훈 인베스트조선 기자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Transparent 투명하고

Generalized 투자하기 쉽고

Innovative 혁신적이며

Efficient 효율적이며

Reliable 신뢰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그래서, 이름이

TIGERETF

TIGER ETF에 투자한다는 건, 투명하고 혁신적이고
쉽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는 것!
ETF를 대표하는 이름, TIGER ETF로 투자에 앞서주세요.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투자 전 간지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변동, 금리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
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1-04963호 (2021.10.27~2022.10.26)

원칙을 지키는 투자-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유튜브에서 **LG미래송** 을 검색해보세요

LG, 이런 미래 가능해?

옥수수로 만든 페트병이 지구를 지키는 미래

빅데이터가 내 생활에 맞춰 집안일을 돕는 미래

AI가 신약개발 속도를 확~ 올려주는 미래

우리에게 또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요?

LG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

[미래로 부르는 미래] 뮤직비디오로 확인해보세요

